

성교육자의 성인식

로리주희¹⁾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아직 이렇다 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현장의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끝난 것도 아니고. 나날이 변화해가는 아이들의 성에 대한 욕구, 이해, 행동, 문제 등등... 교사의 입장에서 그것을 따라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성교육자의 성인식(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강의를 부탁 받고 좀 난감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실전경험을 통해 평소의 느낀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수락하고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강의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문제는 한마디로 끝낼 수도 몇 년에 걸쳐 함께 세미나 할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구체화된 강의에서 반복되더라도 성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의식, 정보, 지식 등등) 들에 대해 제기하고 공유해 보고자 한다.

1) 주민등록 상에는 노주희로 되어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일환인 문화운동으로서 부모성 함께 쓰기에 동참하고 있다.

약력 -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 상담 2부장 역임.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 부국장 역임,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중이며, 석사 논문은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성폭력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

1. 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성교육, Sex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엄격히 분석하면, Sex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및 성기에 의한 성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Sex Education이라는 것은 '남녀가 하반신에 있는 성기로 성교하고 그 결과 야기되는 생식에 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미국 성정보교육평의회(1964)에서는 이런 이유로 Sex 라는 용어 대신에 Sexuality 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으며 Education 이라는 용어 대신에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Sexuality라는 용어는 행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성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전인격을 포함하는 용어인 것이다. 즉, 신체와 성행동 외에도 개인이 지니는 환상, 꿈, 태도, 감정, 사고, 가치관, 신념, 이해심 그리고 개인의 존재의미 등 모든 것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다(윤가현 1993).

Education이란 지식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비해 Communication이라고 하면 훨씬 자유로우며 상호 소통적인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의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시간적 제약과 준비된 교사의 부족으로 그 내용이 사춘기의 신체 및 정신적 변화, 남녀 생리, 몸관리, 이성교제, 성폭력, 임신과 출산, 성적 자아, 정욕 처리방안, 잘못된 성행동, 성병, 결혼과 성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교육은 양성평등, 타인에 대한 존중감 등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또래를 통해 접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게 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성교육은 이제 일방적이 아닌 상호 소통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교사는 상담가,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은 궁극적으로 이성집단을 비롯한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포함해야

한다. 이렇듯 성교육을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인간교육이라고 정의할 때에는 가정에서만 아니라 학교, 사회, 국가 정책적인 차원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정에서의 성교육, 학교에서의 성교육, 미디어와 신문 방송의 역할, 그리고 사회, 국가적인 정책이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II. 성교육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성문화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반된 두 문화가 함께 하고 있다.

터부와 금기로 포장되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엄숙함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금기와 억압에서 해방된 본능과 자유를 표출하는 모습을 지닌다. 성은 부끄럽고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멀리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유교전통에서 비롯된 성문화는 性은 저절로 배우는 것이며 아이들은 性에 대해 모를수록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이들을 마치 性的인 백치상태로 취급한다. 그러나 헬무트 캔들러(1998)에 의하면 아이를 성적 백치아로 가정하고 그렇게 기르는 것, 즉 성금기적인 문화는 성적 방종 문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적 호기심, 관심 등이 학교는 물론 부모에게서조차 불량한 것으로 취급당하면 아이들은 곧 부모 앞에서는 성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백치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부모의 시선을 피해 여러 통로를 통해 나름대로 성적 호기심을 충족해 가고 이것이 성적 탐닉, 방종으로까지 이어진다.

청소년에 대한 성금기적 성문화는 성에 대한 필요이상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며 실행의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른 한 편에서 성 탐닉적 방종적 성문화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공룡사업으로 번성해 가고 있는 향락업소와 매매춘업은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어떠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매매춘업과 향락업소의 서비스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에 기대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남성에 대한 성적 서비스 봉사자로서의 역할임을 은연중에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한 매매춘은 성을 매매하는 업종이며 이에 반영되어 있는 성에 대한 규범과 가치는 성이란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매매춘이라고 하는 성인 대상의 여성상품화 현상은 요즘은 원조교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음란비디오, 음란 게임 등과 같은 오락상품 속에서 성의 상품화 현상이 짙게 배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PC 포르노들은 매매춘 못지 않게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성은 물론 성에 대한 잘못된 규범과 가치관을 인식시키는 사회화의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직접행위 없이 호기심을 충족하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보는 성'은 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적 애독물이 되고 있는 스포츠 신문은 '보통여성'들이 色에 눈이 뒤집혀 남자에게 스스로 성관계를 유혹하는 색녀로 그려지는 만화, 애로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잡지, 포르노 만화, 비디오 역시 성을 과장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성'은 청소년기에 남학생들간에 100%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보는 성은 실제 행위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왜곡된 성의 상품화는 청소년 성폭력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남성중심적 성의 상품화는 '공격적, 가학적인 성=남성의 정상적 성'이라는 신화를 양산한다. 현대사회에서 영화, 포르노비디오, 기타 문화들 중에는 남성의 가학적, 일방적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알게 하는 신화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여자 옷 벗기는 전자오락게임, 강간, 윤간을 미화하는 음담패설, 일간 스포츠의 만화와 기사들이 가

학적 성행위를 학습시키고 있는 것들이다. 요즘은 특히 pc를 통해 on-line 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전세계적인 정보는 그러한 신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성에 대한 관심은 본능적이며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성본능의 표현은 임신, 출산의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또한 일방적인 성본능의 표출은 성폭행이라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왜곡된 성문화와 범람하는 성정보 속에서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동반자(성교육 교사)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당황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가치관을 갖게 하여 공동체 생활에 적응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한다.

Ⅲ. 청소년 성문화의 현주소²⁾

요즘 청소년들의 성문화는 그 패러다임이 아주 다양하다. 10년 전 신문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고생이 자살을 하였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실렸으며, 다른 한 편 신세대 미팅풍속도로 젊은이들이 만나서 바로 손잡고 여관에 드나드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었다. 그 10년 전 현상이 지금 새천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연령별격차도 대단히 크지만 같은 연령대에서도 성적 경험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도처에서 충동질하는 성문화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성지식을 습득할 통로가 없다.

성교육을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까지 생

2) 이 장은 지난 7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여성건강관련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청소년기:10대의 임신과 관련한 성문화와 건강"에서 부분 발췌한 것이다.

물학적 교육에 기초했던 성교육은 또래를 통해, 그리고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이미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침투되기 어렵다.

많이 알고 있으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현주소가 아닐까 한다. 필자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많은 청소년으로부터 피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임신을 부정하고 있거나 임신한 사실에 당황하는 사례를 종종 접했다.

"오빠가 관계 후에 샤워하면 임신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달째 생리를 안 해요.." "오빠가 관계 후에 쿵쿵 뛰면 임신 안 한다고 했는데 입덧을 하는 거 같아요."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사정 액의 분량이 정상인지 아닌지, 성기의 크기가 정상인지 아닌지, 발기 유지 시간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경우도 보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지금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사랑이든 놀이이든 성적 접촉을 하고 있다.

1. 이성교제

이성교제는 이미 초등 학생들이 타 학교와의 미팅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는 평균적으로 15세 이후인 청소년 중기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한다(강태순, 1993)고 보고 있다.

13-19세의 여성 11,433명을 대상으로 한 이찬(1996)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학생 전체의 39.2%, 전국의 여고생 3,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상원 외(1997)의 연구에서는 44.4%, 서울 경기지역 남녀 중고등학생 1,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1997)에서는 45.8%로 보고하고 있다. 이미 1997년 45%를 상회하고 있었다면 요즘 아

이들이 흔히 "우리 반 절반정도는 남자친구(혹은 여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무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키스, 애무

청소년의 키스나 애무 경험은 김상원 외(1997)의 연구에서 여고생들은 없다는 반응이 72.6%로 가장 많고, 있다는 응답은 26.8%였으며, 김태근(1998)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5.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3. 성관계

십대 청소년의 성교 경험률은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1997)는 3.4%, 이찬(1996)은 5.2%, 1997년 서울시내 남녀 중학생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은석(1999)의 조사에서는 남학생이 5.3%, 여학생은 1.6%였으며 김태근(1998)의 연구에서는 13.2%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서울시내 고등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한 박현이(2000)의 연구에서는 17.9%, 전국의 6개 지역을 선별하여 인문계, 실업계, 종합고 1,286명을 대상으로 한 노주희(2000)의 연구에서는 34.1%(남학생 37.9%)로 나타났다.

최옥숙(1992)의 10대 여성의 성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10대 여성의 성교 경험 대상자는 주로 이성친구나 연인이 88.5%로 가장 많았고, 이찬(1996)의 연구에서도 성교 경험의 대상자가 이성친구, 연인이 88.5%로 가장 많았으며, 김상원 외(1997)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성 경험 대상자로 남자친구가 6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상원 외, 1996)에서 성 경험 대상자의 74.7%가 여자 친구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심지어는 여고생 성추행 가해자의 99.3%, 성폭행 가해자의 89%가 남자친구였으며, 성병 경험 경로로

총 7명의 감염자 중 5명이 남자친구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연구(김영희, 1992 ; 홍원호, 1995)도 보고되고 있다(이선경, 2001).

4. 피임

박현이(2000)의 연구에서 피임을 실천하느냐는 질문에 27.9%만이 한다고 대답했다. 피임방법도 실천자중 58.1%가 질외 사정이라는 불완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콘돔사용은 30.2%에 불과했다. 또한 성지식(임신, 피임)에 대한 정답율이 100점 만점의 49.9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노주희(2000)의 연구에서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피임법에 50.7%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콘돔정도의 피임법은 알고 있으나 그 외의 피임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콘돔피임법에 대해서도 남자 청소년들의 실천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즐기기 위한 성적 유희에 쾌락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임신에 대한 책임태도에서는 두 연구에서 모두 다 낙태를 피임의 한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임신

김상원 외(1997)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 임신경험이 있는 여고생이 0.4%(14명)이었으나 무응답이 1.8%나 되었다. 무응답에 임신사실을 밝히기 꺼려한 여고생이 있을 것임을 추산한다면 0.4%에 대한 수치는 신뢰하기 어렵다.

김태근(1998)의 연구에서는 임신경험이 있는 학생이 7.4%였는데 남학생이 8.3%, 여학생이 6.1%였다.

대전지역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661명을 대상으로 한 김봉순(1999)의 연구에서는 임신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1.9%였고, 남학생이 3.2%,

여학생이 0.6%였다.

박영주(1998)의 논문에서는 십대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0.72%로 보고하고 있다.

박현이(2000)의 연구에서는 성경험 있는 남고생중 임신경험이 있는 비율이 15.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사귀는 기간이 짧은 청소년이 사귀는 동안에 임신한 경우를 말한 것이므로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인영(2000)은 84년 한국여성개발원과 96년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십대 미혼모의 비율은 거의 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 미혼모 시설의 입소자 현황보고자료에서 입소자 중 십대의 비중이 1991년에 19%에서 1999년 56%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십대 미혼모(임신)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밝히고 있다.

6. 인공임신중절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공식적으로 150만 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년 전국 출산력과 가족보건 실태조사」), 비공식적으로는 20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1년에 60여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통계가 있으니 태어나는 아기보다 인공임신중절되는 아기는 3배나 더 많은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은 세계 2위를 달린다고 한다(이숙경, 1999).

1997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통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이 20-24세가 7.9%, 25-29세가 5.1%, 30-34세가 4.9%, 35-39세가 1.6%로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44%였다(보건연감, 1999). 한인영(2000)은 이러한 결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인 불감증을

갖고 있는것으로 보았다.

박영주 외(1999)연구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경우가 0.5%로 나타났다으며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회가 46.1%, 2회가 15.4%, 3회가 15.4%, 4회 이상이 23.1%로 2회 이상 반복된 경우가 53.9%였다.

또한 1996년도에 보고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에 대한 연구(이홍균 외, 1996)에서는 청소년층인 16-20세에서는 26.5%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4.9%였다. 이들의 이유는 양육이 어려워서(44.9%), 강간(26.5%), 결혼할 수 없어서(22.4%), 기타(6.1%) 순이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시 임신기간은 1개월이 4.8%, 2개월이 11.9%, 3개월이 45.2%, 4개월이 23.8%, 5개월이 14.3%로 4개월이후인 중반기 유산이 38.1%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성친구(62.2%), 부모(13.3%), 친구(13.3%), 기타(11.2%)로 나타났다.

박현이(2000)의 연구에서는 성관계 후 임신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의 78.3%로 나타났다. 비용마련에 대해서는 본인(42.1%), 성관계 상대(26.3%), 친구(15.8%) 순이었다.

노주희(2000)의 연구에서는 임신에 대한 책임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질문에 26.9%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했으며, 10대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92.2%가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여중생들이 "낙태계"를 하여 친구가 임신을 하면 낙태비용을 부담해 주는 일까지 하고 있다(김상원, 1995). 이는 우리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합법적 사례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로 현황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심각성만큼은 짐작하게 하고 있다.

7. 출산

박영주 외(1999)의 연구에서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은 0.1%, 박현이(2000)의 연구에서는 아이를 낳아길렀다 4.3%, 낳아 입양했다 8.7%로 출

산한 경우는 전체의 13%였다.

유니세프의 1998년도 국가발전백서에서는 10대 소녀(15-19세)의 출산율을 미국은 6%, 유럽은 2.5%, 한국은 0.4%로 보고하고 있다.

김상원 외(1997)의 연구에서 출산을 경험한 여고생 중 이들이 임신을 인지한 시기는 월경을 한번 거른다음이 14.3%, 월경을 3번이상 거른 다음이 14.3%, 입덧 때문이 42.9%, 모르고 있다가 배가 불러와서 21.4%, 분만 진통으로 7.1%로 출산경험자의 42.9%가 임신을 인지한 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10대 출산은 미혼모 문제로 직결된다. 미혼모는 특성상 공식적인 전국통계는 없으나 입양기관을 통해 파악된 미혼모의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연감, 1999). 최근 우리나라의 미혼모 실태를 보면 10대가 56%를 차지하고 있다(김한경, 1997).

앞에서 여러 문헌과 연구조사들을 바탕으로 살펴 본 결과 다시 한번 청소년들의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문화의 현주소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정상적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Ⅳ. 청소년의 동반자(성교육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든 상담자이든 자신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동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소통(Communication)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인 것이다.

이미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도 왜곡된 지식과 성문화에 쩌

들어 살아온 세대이며 새롭게 고민하고 건강한 성과 가치관을 정립해 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기에 아이들보다 좀 더 앞선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1. 가정에서

올바른 성행동과 성욕을 승화할 수 있는 태도는 어린 시기부터 키워져야 한다. 가정에서는 처음 여자, 남자라는 것을 이해할 때부터 평등개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남녀노소를 똑같이 존중하는 가정환경이 존중되어야 성폭력과 같은 여성과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아이 수준에 맞는 설명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2. 학교에서

-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반드시 아이들의 수준에 맞아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히 철저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성문제와 관련된 법률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형벌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한 놀이나 호기심의 충족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음란 인쇄물과 영상물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비판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 동성애의 문제도 다뤄야 한다.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 90년대를 들쭉였다면 새천년에는 트랜스 젠터에 대한 관심이 하리수의 등장과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성정체성이 불안정한 청소년기에는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들이 예상되어진다. 이에 대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평가가 필요하다.

- 피임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 임신, 성폭행, 성병 등 성행동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 준비된 성교육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의 준비부족과 혼란스러운 교육관, 자신감 결여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수교육의 강화와 외부전문강사 이용방법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더 나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부모로서, 교사로서..)

- 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는 우선 성에 대해 쑥스럽거나 나쁘다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태도는 아이에게 거울과 같이 그대로 반영되어 닮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성을 죄악시하고 금기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경우, 대체로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 그러므로 교육자가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감추는 성에서 건강하게 즐기는 성을 이야기 한다.

본래 성이란 인간이 누려야 할 기쁨의 특권 중 하나이지 하찮은 동물적인 것이 아니다. 성은 성인이 되어야만 생긴다기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성

장과 함께 생애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음식과 물을 먹고, 잠을 자야만 하는 인간 본능과는 다른 차원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성의 특성이기도 하다. 즉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욕구이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과 약속아래 충족되어야 한다. 시기와 장소와 정도는 사회에서 허락하는 범위가 있으며, 신체적·성적·정신적·경제적 성숙과 상호간의 합의와 책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성관계라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 성을 어떻게 하면 숨기고 들키지 않으며 누리는가 하는 은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쪽으로 생각할 때이다.

- 자유로운 부모:자녀간의 대화 분위기와 교사:학생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평소에 관계가 잘 이루어져 아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나 교사는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존중의식이 생기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잔소리를 자주 하지 않을 수 있고, 지나치게 꾸중하거나 화내기를 줄일 수 있다. 대체로 2차 성징이 발현하는 사춘기가 되면 부모나 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보다는 친구가 주된 상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할 수 있다.

어른들이 성에 대해 폐쇄적 태도를 갖고 있거나 성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질책할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은 죄의식과 함께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자신감을 잃게 하여 인격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만약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경우 체면 유지를 위해 아무렇게 둘러대기보다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으니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대답을 유보하고, 반드시 전문서적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하고 추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사람과의 비교는 아이들에게 위로나 용기를 주기보다 그들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누적되는 열등감은 강박관념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특히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성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적대감을 불러 일으켜 급기야는 결혼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거나, 성행동에 있어서는 성기능 장애나 불감증을 나타나게 한다. 거 심하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자폐증상과 같은 인격장애로 치달을 수 있다.

- 인간은 누구나 성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여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발달단계에 따라 아이도 성욕을 느끼며, 이성을 그리워하는 성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성욕’은 성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욕이란 단순히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에서부터 이성과 만나고, 함께 있고 싶고, 배려 받고 싶고, 포옹하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성관계를 갖고 싶은 것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임을 깨달을 때 성인만의 전유 영역이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모범생에게도, 비행청소년에게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유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욕이라는 점을 인정할 때 성욕 해소를 위한 성행동은 남녀노소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성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성교육의 필수 요건이다.

- 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과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때때로 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관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데 있다. 어떤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들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요령을 얻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정자와 난자가 성교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됨을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의 호기심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성교를 빼고 추상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만난다는 설명은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호기심의 꼬리를 계속 잇게 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현실 직면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성적 자극을 받아 성기의 변화로 성기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과학적 도식에 따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에 관한 단어는 전문적인 의학용어나 속어 등 대체로 극단적이다. 의학용어는 영어나 한자가 대부분이어서 사용하기에 어렵고, 속어는 욕으로 쓰여지는 것이 많아 또한 곤란하다. 그래서 성기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대로 ‘자지’, ‘보지’라고 명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괜히 둘러 말하면 감정이 들어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된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자연스럽게 부르듯, 생식기의 명칭도 그렇게 할 때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의학용어는 딱딱한 반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성지식을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성교육은 남녀가 한자리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흔히 여자에겐 여성의 특성을 남자에겐 남성의 특성을 교육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자도 남성

의 특성을, 남자도 여성의 특성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비밀스런 호기심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개적으로 성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책임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책임감은 결과를 예상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행동하고, 행동의 결과는 자신이 감당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책임의식이 철저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단은 행동 후에 나타날 결과를 이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빼앗겼다’거나 ‘빼앗았다’ 혹은 ‘정복했다’는 책임전가식의 표현은 적용되지 않는다.

에릭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남녀간의 사랑을 낭만적인 것에 치중하기 않고 책임있는 사랑의의식을 갖는데 좋은 지침이 된다.

첫째, 사랑은 노동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모성애가 자녀에 대한 자발적인 노동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물이나 꽃에 대한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함이라면 우리는 그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 없다. 이성친구를 사랑한다면 노동으로 그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노고를 보기만 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상대를 위해 노동하고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서로가 상대를 위해 노동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둘째, 사랑은 책임이다. 흔히 책임은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을 뜻한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항상 상대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요구에 대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를 책임지듯 상대를 책임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셋째, 사랑은 존경심이다. 사랑의 요소에 존경심이 빠지면 책임은 손쉽게 지배의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이 아니고 상대가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것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 인격적인 대우를 뜻한다. 상대가 나에게 이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을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대로서 사랑하고 있다면 존경은 오직 자유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넷째, 사랑은 이해심이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상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보호하고 책임지는 마음은 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이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맹목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표면적으로 화를 냈다고 해도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의 노여움이 불안, 근심, 죄책감의 표현임을 알고 이해하게 되며 그를 화낸 사람이라기 보다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

그리하여 서로간의 책임과 존경심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만나야 성은 독점이나 소유가 아니라 서로간에 공유되며 발전적인 남녀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당면교육 내지 사후교육 방식에서 사전교육의 방식을 취한다.

태도나 가치관은 어느날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형성된다. 따라서 유치원부터의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사전에 지식체계가 형성되었을 때 변화에 직면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 임신의 원리와 피임의 원리는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

피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미혼의 청소년에게 암암리에 혼전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전제아래 임신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되어 적극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이라는 것이 종족보존을 위한 생식기능만을 갖지 않고 정서적 즐거움이 오히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생식 이면의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

두서없이 공유하고픈 내용들을 나열하여 보았다. 이제 출발의 시간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더 계발되어지고 정리되어 질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태순(1993),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이중(1996), 「청소년학개론」, 서울: 과학교육사
- 김봉순(1999), ‘고등학생의 성경험 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논문집-공주영상정보대학 Vol. 6
- 김상원(199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방안과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 「청소년 성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성문화 연구소
- 김상원 · 신동진 · 송인숙 · 박순정(1996), ‘남자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 김상원 · 이양재 · 박순정 · 김수련 · 송은일(1997), ‘여고생의 성의식 및 실

태조사', 한국성문화연구소

김영희(1992), '청소년의 성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태근(1998),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노주희(1997), '성폭력범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주희(2000), '남학생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가꾸기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노주희(2001), '청소년기: 10대의 임신과 관련한 성문화와 건강', 「생애주기별 여성건강문제와 의료전달체계 연속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바탕데, 일리자베트(1992), 「XY 남성의 분질에 대하여」, 최석(역), 민맥, 1993

박영주 외(1999), '한국십대 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경험 실태', 대한간호학회지 28(3)

박영주(1998), '한국 십대 여성의 임신, 낙태 및 출산 경험 실태', 대한간호학회, 28(3). 573-582

박현이(1996),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보호관찰대상자(성폭력범)의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이(2000), '10대 남자 청소년의 성행태에 대한 조사', 서울 YMCA 청소년성교육상담실

보건연감(1999), 보건신문사

성문화연구소(1996), '청소년의 성교육-사회적인 면', 「성교육지침서 자료집」

- 이 찬(1996), '한국여성의 성 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선경(2001),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 자기 주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성욱(1989),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숙경(1999), '낙태보고서', 「섹슈얼리티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 1999
- 이숙희(2001),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1998), '우리사회의 성문화', 「한국 남성의 성문화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흥균 외(1996), '인공유산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 차은석(1999),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12(2):357-375
- 최두석(2000), '인공임신중절과 청소년의 성건강',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토론회
- 최옥숙(1992), '여고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1997), '남녀중고생 대상 성의식 실태조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 한인영(1998), '미혼모 발생 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제3차 학술대회 연제집
- 한인영(2000), '청소년의 성문화-임신, 낙태의 현실과 대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토론회
- 헬무트 켄들러(Helmut Kenteler), 「행복과 해방의 성교육」, 손덕수, 허판례 번역, 도서출판 대원사, 1998

- 홍원호(1995), '남고생의 이성교제와 성의식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
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재숙(1997), '성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학습목표', 「새교실」, 한국교육
신문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 황은자(1997), '교사·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 「새교실」, 한국교육
신문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 Sauveur Boukris & Elise Donval,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원 편역,
1991